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서생'이자 '상인'인 정치인을 찾아서

“서생(書生)의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의 현실감각으로 하는 것이 정치”라 했던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은 실천적 리더십의 핵심을 찌른 통찰이다. 이렇게 쉬운 말로 정치 리더십을 정의하다니 정말 ‘선생님’이다.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하려는 사람은 물론, 정치인을 선택하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국민도 이 기준을 치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 말을 천착해 보자. 첫째,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마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겠다. 이러한 해석은 금방 수긍이 된다. 민주주의와 남북 평화라는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했기에 김대중 선생은 평생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수미일관(首尾一貫)할 수 있었다. 남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속에서 끓어 오르는 ‘의식’이 생생했고, 그래서 당장의 현상적 문제만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핵심을 건드릴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런데 현실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진정한 문제의식이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나? 그

렇다면 문제의식 없이 어떻게 용기가 나오겠는가?

둘째, ‘현실감각만 있는 사람은 정치하지 마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대중 선생께서 말씀하셨던 현실감각이란 ‘현실 매커니즘을 꿰는 정치를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돈과 제도와 조직과 사람들의 욕망이 얽혀서 일어나는 인간사회라는 복잡계를 이해하고 헤쳐 나가는 능력 없이는 그 어떤 작은 것 하나 현실에서 실현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현실감각을 ‘이권 감각’으로 오독하는 정치인들이 워낙 많다. 지역구에 예산 당겨오는 것이 현실감각이란 말인가? 표적 사람들에게만 딱 하나 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 자격이 있는가? 오직 자신의 공천과 당선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무슨 정치인이란 말인가? 이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표현하는, 장사꾼보다 훨씬 더 저질인 정치꾼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정치 꿈도 꾸지 마라!’는 해석은 또 어떠한가? 정치인들 중에는 책을 지금도 읽고 있을 것 같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금

방 구별되지 않는가? 젊은 한때 읽어 봤던 책으로 밤낮 없이 울드송만을 부르고 있거나, 사실은 한 번도 자신의 시각으로 책을 읽어 본 적이 없거나, 자서전 정도를 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이 시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눈도장 찍고 발품 파는 정성만끝이나 이 시대의 고민을 안은 책을 끊임없이 찾고 읽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그 정치인에게 희망을 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관건은 서생과 상인을 겸비하는 것이다. 문제의식과 현실감각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쪽만 기형적으로 발달한 인물이 만들었던 잠극을 많이 보아 왔다. 철저하게 상인 출신이었던 이영박 전 대통령은 특정 소수를 위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고 국가를 운영했다. 공적인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 어떻게 그 본색을 국민들이 그렇게 몰랐을까 이상할 정도다. 하기는 지금 미국에서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실을 보자면, 선진사회라는 미국도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사실 서생의 문제의식도 상인의 현실감각도 전혀 없는 사람을 대통령(박근혜)이 되게 한 우리 사회이니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오로지 선거 이기기에만 유능한 ‘선거의 여왕’,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문제의식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대통령,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려 들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 척하는 능력만 한없이 발달한 대통령, 서생이지도 상인이지도 못한 대통령을 보는 이 답답함을 어찌하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기엔 이르다. 다른 정치인들을 자세히 뜯어보며 희망을 품어 보자. “저 사람은 평생 불독고 있는 명명한 주제가 있어. 저 사람은 속에서 끓어 오르는 분노와 한이 있어. 저 사람은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는 꿈이 확실해. 저 사람은 녹록지 않을 것이야. 타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지만 절대로 포기를 모를 것이야. 저 사람은 지금도 책을 읽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해.” 우리는 우리에게 딱 맞는 수준의 정치인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보자.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종교칼럼

타이타닉, 당신의 인생은 안전하십니까?



김성원 광주중흥교회 담임목사

1912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자긍심을 갖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배한 척을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조준소에서 건조하게 됩니다. 총 선적량 4만 6328t에 길이가 265m, 깊이 20m, 폭이 30m나 되는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 ‘타이탄’에게서 그 배의 이름을 따와 ‘타이타닉’이라 붙여놓고,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드디어 그 배는 4

월14일 2208명의 승객을 싣고 대서양 횡단을 위한 첫 출항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해역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항해사는 해안 통제소로부터 ‘전방 빙산 주의!’라는 무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항해사는 거대한 배를 신뢰한 나머지 선장에게 보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 급박해진 통제소에서 계속 무전을 보냈지만 이미 자리를 비우고 만 항해사는 그런 무전이 오는 것을 알 리 만무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점점 빙산을 향해 나아갔고, 항해사는 한없이 지난 후애 선장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합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저 정도의 빙산이 이 ‘타이타닉호’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장은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결세, 항해를 계속해!”

결국 타이타닉은 거대한 빙산과 충돌했고, 결국 그 사고로 1513명의 귀중한 생명이 배와 함께 침몰해 얼음바다 한복판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머칠 후의 일입니다. 배가 건조되었던 벨파스트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아가 된 어린이들과 미망인이 된 여인들, 정부 고관들, 목사들이 함께 모여 추도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설교 제목이 바로 ‘가라앉지 않는 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에서 ‘타이타닉’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 오직 칼릴리 바다 풍랑 위에 떠 있던,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던 그 작은 배 한 척에 대한 이야기만 설교 되었을 뿐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타이타닉에 대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타이타닉은 무엇인가? 타이타닉은 재앙(災殃)이다. 인간만의 재앙이 아니라 온 지구의 재앙이다. 인간이 만든

온갖 구조물(인간이 살기에 필요한 것보다 너무나 큰 물건들)인 빌딩, 도로, 교량, 선박, 비행기가 타이타닉이 아닌가? 에이즈, 구제역, 광우병이 타이타닉이 아닌가? 인간의 질병을 고친다는 온갖 의약품이 타이타닉이 아닌가? 인간이 만든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온갖 시스템이 타이타닉이 아닌가? 인간의 아집과 편견이 만든 타이타닉중에서 내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타이타닉은 인간의 온갖 오만과 허영과 탐욕이 만든 재앙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타이타닉은 100년 전 대서양 깊은 바다에 가라앉은 그 여객선이 아니다.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타이타닉 선상이다.”

일찍이 한 철학자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당신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社說

작품 관리 소홀로 1억 날린 비엔날레재단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비엔날레 전시작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작품 파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소송을 제기한 갤러리 측에 최근 1억 500만 원을 배상해 주었다고 한다. 이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을 상대로 독일 소재 갤러리(마하엘 베르너)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이 최근에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3개의 석조 작품으로 이뤄진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최초로 완전히 의문스러운 철학의 형상’은 2010년 광주비엔날레에 전시되었다. 하지만 운송업체가 포장하는 과정에서 작품 1점의 상단 모서리가 일부 파손된 것이 발견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재판부는 “사전에 작품의 특성을 파악한 후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다 넓은 면적의 밴드를 이용하는 등 표면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재단이 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단이 작품 파손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최근 광주비엔날레 전시는 평면작품보다 파손 우려가 큰 설치작품 위주로 전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단이 사전에 갤러리 측과 작품 운송이나 관리 등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시 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작품들이 오고 가는 비엔날레 작품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설치작품들은 고가인데다 부피가 커 설치와 해체 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한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비엔날레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시작품 운송과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작품 관리를 소홀히 해 큰 손해를 보는 우(愚)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을분쟁 해결센터’에 거는 기대 크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광주시 남구 백운동 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서 오는 11일 문을 연다고 한다. 사소한 일을 법정까지 끌고 가는 소송을 막기 위해 민관이 함께 만든 주민자치 모델이다. 이웃끼리 갈등을 빚을 때 중재할 시스템을 마련해 토론과 조율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문화 복원이란 의미도 크다.

마을분쟁해결센터는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이 센터 설립에 관여했고 앞으로 법원이 운영을 맡는다. 변호사와 교수·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남구 지역 주민 등이 분쟁 조정인으로 참여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조정회의를 열고 분쟁 당사자들을 불러 갈등 해소를 나설 계획이다.

마을분쟁해결센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중심이 돼 조정기에 나서는 공식 소송이나 행정심판과 달리 주민들이 토론과 소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데 있다. 조정 이행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물적·심적 부담을 줄이고 이웃 간 갈등의 골을 얕힌다는 점에서 첫 시행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당장 소송 분쟁이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통해 주민 손으로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증간소용·개 짓는 소리 등 생활소음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광주시만 하더라도 지난해 접수된 생활소음 민원만 1565건이던 것이 올해는 7월 말 현재 960건에 달할 만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생활소음은 관련 법규가 기준이 미흡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 조정을 전담하는 기구는 없었다. 광주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위법사항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출범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가 골목길 주민 민원 해결의 대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 열달까지 시범 운영한다는데 성공적으로 정착해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되길 바란다.

기 고

침체된 지역경기 살아나려면



이명종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예를 들어 곁에 물이 반이 차 있다고 하자. 어떤 사람은 이를 보고 ‘컵에 물이 반이나 차있네’라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처럼 동일한 현상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온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어서 에너지가 넘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어서 웬지 현실을 시니컬하게 보고 뼈뺌하게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경제지표 중에서도 소비자나 기업가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라고 물어 이를 종합한 경제심리지표가 있다. 이 중 기업들의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가 바로 그것이다.

BSI는 기업들에게 전반적인 업황(전반적인 기업경기), 제품재고, 설비투자규모, 생산설비수준, 인력사정, 신규수주·생산·매출(내수,수출)·가동률, 제품판매가격, 원재료 구입가격, 채산성, 자금사정 등의 현재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묻고 이를 수치화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BSI가 100이면 긍정적인 응답업체 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 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초과하면 긍정응답업체 수가 부정응답업체 수보다 많다는 것을 나타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을 의미한다.

지난 3월 우리분부는 광주·전남지역의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중 550곳을 대상으로 7월 업황 및 8월 전망을 조사하여 BSI를 발표했다. 광주·전남지역 BSI가 업황(72) 및 전망(71) 모두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은 점에서는 전국적인 모습(업황 70, 전망 70)과 같지만 전월과 비교해서 움직이는 방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전국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업황 및 전망 BSI는 전월에 비해 상승했지만 광주·전남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매출, 생산, 신규수주, 자금사정 BSI가 전월에 비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상승하는 인력사정 BSI도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매출, 자금사정 BSI가 하락하였고 인력사정 BSI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상승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방증해 주었다.

필자가 최근 들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해 보면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건설수주 규모가 여타 지역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광주·전남지역의 업체들이 전국 트렌드 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망도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본부를 포함하여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들이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은행을 통해 4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4300억원의 지방중소기업자금 지원하고 있는 우리본부도 혹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세밀하게 모니터링 해야겠다. 아울러 단기간에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기는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기업인들도 체감하기 쉬운 비제조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하겠다. 예컨대 한국은행 자료(산업연관표)에 의하면 10억원을 투자하여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보면 광주·전남의 주력업종인 화학제품은 6명, 철강 5명, 전기 및 전자 기기 5명, 운송장비 8명인 반면 음식집

및 숙박 26명, 도소매업 20명, 건설 1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머스트 사대가 사실상 끝나가고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분위기도 무르익어 가고 있어 침체됐던 우리 지역 관광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전남도도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해외 관광객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시 전남을 찾도록 국내에서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그 성과도 나타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필자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펜베나루 숲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어도 경정이 치열해 숙박 예약이 어려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숙박시설을 늘려주는 한편 지자체들이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점’을 인증 및 지정하는 제도를 활성화하여 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면 어떻까 한다. 아울러 서울의 남산타워처럼 사적공원 전망대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어떻까? 광산구가 얼마 전 발표한 ‘호남고속철도 개통 효과 조사’에서 광주에 대한 느낌으로 ‘친하고 정이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는데 전망대에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며 광주의 야경과 ‘정’을 느끼고 싶다.

無等鼓

2015년 2월 아카데미 시상식, TV 생중계를 보던 사람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객석에 앉은 배우들의 기립박수와 눈물이었다. 흑인 배우 데이빗 오예로와 역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는 오프라 윈프리의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장면은 R&B 가수 존 레전드와 배우 겸 래퍼 커먼, 그리고 수십 명의 코러스가 함께 한 ‘글로리’(Glory) 공연 후 펼쳐졌다. 두 사람은 아카데미상 주제가상을 받은 후 수 소감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영화다. 우리의 삶을 작품에 담은 것은 아티스트의 의무다. 정의를 위한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1965년 3월 미국 앨라배마 셀마 600명의 시위대는 앨라배마주 소도시 셀마에서 주도(州都) 몽고메리까지 평화행진(86km)을 나섰다. 시위대의 요구 사항은 흑인들에게도 진정한 투표권을 달라는 것이었다. 주 경찰의 폭력 진압에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피의 일요일’ 사건이다.

이들 후인 3월 9일 마틴 루터 킹 목사

가 주도한 시위대는 2차 행진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3월 21일 세 번째 행진에서 킹 목사는 지지자 2만5000여 명과 함께 나흘 만에 몽고메리에 도착했다. 셀마 행진은 흑인들의 참정권을 완벽히 보장한 투표권리법 통과와 촉매제가 됐다.

다시 2015년 8월 인종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백인 경관들의 무차별 총격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 흑인 인권단체는 지난 1일 ‘셀마 행진’을 50년 만에 재연했다. 셀마 행진의 출발점이었던 ‘에드먼트 패터슨 스타디움’에서 ‘정의의 열을 향한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영화다. 우리의 삶을 작품에 담은 것은 아티스트의 의무다. 정의를 위한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 ‘셀마’도 상영 중이다. 영화는 마틴 루터 킹과 주변 인물들이 세 차례 셀마 행진을 시도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폭발력 강한 소재이지만 오히려 잔잔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기에 더 깊은 감동을 준다. 우리의 모습도 자연스레 떠오른다. 영화 제작진 브래드 피트와 오프라 윈프리가 참여했고 윈프리는 배우로도 출연했다. 자막과 함께 흘러나오는 주제가 ‘글로리’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부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